금강산

2
주체111(2022)
루계 제390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2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1(2022)년 2월호

표지: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한송이한송이 아름다운 꽃송이들로 꽃바구니를 엮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방은심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부대가 되자 · · · · · 2

백두산밀영고향집 · · · · · · · · · · · · · · 14

애국헌신의 한생 · · · · · · · · · · · · · · 18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로대를 마련하시려 · · 21

병사들의 친어버이 · · · · · · · · · · · · 26

일 화

축복받은 가정들 · · · · · · · · · · · · 28

대 담

주체문학예술의 개화기를 펼쳐주시여 · · · 30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 · · · · · · · · · · 32

좌담회

오로지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 · · · 34

수 기

어버이의 축복속에 우리 삽니다 · · · · · 36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 · · · 38

그리움을 안고 · · · · · · · · · · · · · · 40

제390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건군절과 더불어 빛나는 행로 · · · · · · · 42

북창의 전력생산자들 · · · · · · · · · · · 46

산림조성의 척후병들 · · · · · · · · · · · 50

박사형제 · · · · · · · · · · · · · · · · · 54

려명골프려행사의 활동 · · · · · · · · · · 56

대 담

민족의 향취를 더해주는 설명절풍습 · · · 62

고향소식

산간도시 강계 · · · · · · · · · · · · · · 66

민족과 운명

환생한 삶 · · · · · · · · · · · · · · · · 70

조국의 품에 안겨

금메달을 쟁취하기까지 · · · · · · · · · 74

력사인물

서예의 대가 김정희 · · · · · · · · · · · 77

자강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인풍루 · · · · · · · · · · · · · · · · · · 78

리명수폭포의 설경 · · · · · · · · · · · · 80

상 식

심장관리를 잘하자면 · · · · · · · · · · · 73

개성지방의 돌칸한증 · · · · · · · · · · · 76

편집: 리경훈, 최은혁
ㄱ-22808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부대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주체111(2022)년 1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이 새로운 고조국면에 들어서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시기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가 열리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새시대 농촌혁명, 농촌진흥의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위치와 임무를 재확인하고 전국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사회주의농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가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려는 당의 의도와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와 열의에 맞게 동맹사업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전환적인 계기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빛나게 실현해나갈 드높은 각오와 결의를 안고 올해 영농전투에 진입한 전국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 사를 보냅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당과 뜻을 같이하고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 하면서 농촌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쌀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상최악의 격난속에서 국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온 승리적인 투쟁로정에서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걱정, 나라의 어려움을 자기의 아픔으로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 혼심을 다 바쳐 분투함으로써 농업생산을 거의 해마다 장성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은 지난해에도 장기화되는 비상방역상황으로 그 어느때보다 부족한것이 많고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이 계속되는 불리한 환경속에서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농업생산을 얼마든지 늘일수 있다는 신념을 안고 이악하게 농사를 지어 우리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으며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지성어린 애국미를 바친 연안군 도남협동농장 제12작업반 농장원들과 영광군 상중협동농장 농장원들이 보내온 편지에서 자기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당에 힘을 주고 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는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보석같은 마음과 고결한 정신세계를 보았으며 그 어느때나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가까이 따라서주는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농촌문제해결의 절박성과 변혁적의의를 심오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농촌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게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기 위한 웅대한 목표와 투쟁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에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새시대의 농촌혁명가들로 키우고 온 나라 농촌을 세계가 부러워할 지상락원으로 전변시켜 당을 따라 준엄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함에 무한히 헌신하여온 농업근로자들이 공산주의사회의 첫 어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담겨져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실현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하고있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농촌진흥은 그 변혁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나 과업의 방대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전례없이 거창한 위업으로서 수백만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그 어느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 최대의 분발력을 안고 한결같이 떨쳐일어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이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마땅히 당의 새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렬에 나서야 하며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는 농촌혁명의 척후대, 선봉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농근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드는 새시대 농촌혁명가, 애국적인 농업근로자

로 준비시키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농근맹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현대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만드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내밀어야 합니다.

농촌혁명은 곧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입니다. 농촌이 진보하고 변혁되자면 무엇보다먼저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과 문화기술수준이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개변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새시대 사회주의농촌발전에서 주력군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수 있게 준비되여 있어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키우는데서 기본은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는것입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목표와 과업들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농근맹원들이 새시대 농촌혁명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임무를 똑똑히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선전을 포전에 나갈 때도 하고 돌아올 때도 하며 일하면서도 하고 작업의 휴식참에도 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농근맹원들이 환히 인식할 때까지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 농촌이 변하는 시대를 펼쳐준 당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할뿐 아니라 실천투쟁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사회주의농촌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적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5대교양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하여 그 하나하나의 교양사업이 인간개조의 자양분이 되고 당정책관철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 부단히 심화시켜 모든 농근맹원들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을 심장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길이 빛내이며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대를 이어 보답해가는 열혈의 충신들로 키워야 합니다. 학습과 강연, 해설담화를 비롯한 모든 교양계기들, 본신과업수행과 생활의 여러 공간들이 농근맹원들속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전통을 체득시키고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배양시키는 사상적수양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 천리마대고조시기 농민영웅, 애국농민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우리의 전세대들이 그처럼 준엄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새 나라를 지키고 일떠세웠는가를 똑똑히 알도록 하는것입니다. 농근맹조직들은 특히 새세대 농업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전세대들의 영웅적인 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당의 령도밑에 펼쳐질 문명부흥할 사회주의농촌의 래일을 내다보며 후세에 남을 위훈의 새 력사를 써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농촌혁명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동지들의 기쁨에서 행복을 찾으며 서로가 뜨겁게 위해주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공산주의미풍,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가 자라날수 있는 요소들에 각성을 높이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투쟁과 생활속에 참답게 뿌리내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지식형근로자로, 농촌진흥의 주인공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농촌진흥은 농업생산력의 질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농업생산의 획기적인 장성은 농업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에 의하여 좌우되게 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에게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당의 과학농사제일주의방침도 관철할수 없고 시대의 락오자, 관망자가 되고만다는것을 인식시켜 누구나 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하기 위해 피타게 학습하고 탐구하는것이 우리 농촌의 달라진 풍조, 생활기풍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전반적기술지식수준을 높이도록 하며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을 잘 꾸리고 활용하여 선진과학기술과 부단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물학, 화학과 같이 농사에 절실히 필요한 일반지식은 물론 선진적인 영농방법과 기계기술, 물관리기술, 토양관리기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특히 새세대 농근맹원들이 지식과 기술소유의 폭을 끊임없이 넓혀나가는데서 앞장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과 창의고안, 선진영농기술도입에서 모범적인 농근맹원들을 평가해주는 사업을 의의있게 잘하며 문답식학습경연과 경험발표회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이 과정이 농근맹원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농업생산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도록 옳바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농업생산구조를 바꿀데 대한 방침과 두벌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방침관철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영농실천을 통하여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는데 모를 박아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속에서 과학기술을 홀시하고 낡은 경험에만 매달리는 현상, 하늘만 쳐다보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리며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듯이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총화사업도 제때에 하여야 합니다.

당의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에 따라 앞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며 가까운 앞날에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농업근로자들의 높은 지식과 기술기능수준이 결합되면 나라의 농업생산력은 지속적인 발전궤도우에 확고히 올라설것이며 누구나 흥겹게 일하는 농촌진흥의 래일은 더욱 앞당겨질것입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을 높은 문화의식수준을 지닌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뒤떨어진 문화수준, 되는대로 생활하는 뿌리깊은 생활인습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우리 농촌을 현대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아직은 모든것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농촌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려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뜻을 깊이 새기고 농근맹원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현대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에 농근맹원들을 정신문화적으로 개변시키는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이 낡고 뒤떨어진 생활방식과 인습의 해독성과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를 똑똑히 알고 생활습성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변하며 위생문화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데 품을 들여야 합니다. 농근맹원들이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단정하게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도록 하는데 이르기까지 문화생활의 모든 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옳바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고상한 도덕적풍모는 새시대 농업근로자들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속에서 혁명적이고 건전한 도덕기풍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 그들이 순박하고 근면할뿐 아니라 고상한 인격을 갖춘 참인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혁명선배들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이웃들과 화목을 도모하고 서로 위해주면서 덕과 정을 두터이해나가는 미풍이 새시대 사회주의농촌의 풍속으로 자리잡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본태를 흐리게 하고 집단의 단합에 저해를 주며 고상한 륜리관계를 파괴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요소들이 싹트지 못하도록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이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활력에 넘쳐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명절과 기념일들에는 물론 작업의 쉴참에도 체육경기와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전야와 마을이 희열과 랑만으로 들끓고 집단안에 풍만한 정서와 락천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선전수단과 방법으로 농촌에 수도의 문화, 로동계급의 문화를 널리 보급전파하고 그 과정이 농업근로자들의 눈을 틔워주고 발전된 문명을 체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촌이 개변되여나가는 현실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농근맹원들이 자기가 사는 고장을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삼지연시의 농촌살림집들과 같은 현대적이며 리상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사랑과 배려를 새겨안고 생활환경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는것으로 당의 은덕에 보답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자기 마을은 물론 지역의 도로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살림집들과 마을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 꽃관목들과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농촌마을의 풍치를 돋구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속에서 사소한 해이와 방심, 빈틈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상교양과 대중적투쟁을 심화시켜 방역규률과 질서를 지키는것이 몸에 푹 배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농근맹조직들이 중시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모든 농근맹원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이 자기 가정과 후대들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수호하기 위한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원들에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의 위험성과 해독성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들속에서 이색적인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우며 그 자그마한 싹도 단호히 뿌리빼야 합니다.

농근맹원들이 누구나 농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는 립장에서 알곡을 부정처리하고 허풍을 치거나 국가가 보장해준 영농물자들을 밀매하는 행위를 비롯한 위법행위들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게 하며 이러한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시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농업전선은 사회주의건설의 최전선으로 되고있으며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을 보장해주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치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농촌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현시기 가장 절박하고 관건적인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웠으며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장성을 위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경영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농사에 계속 힘을 집중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전례없는 규모에서 벌려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어떤 각오와 립장을 가지고 농업생산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인민생활향상과 국가존립, 국력강화의 전도가 걸린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중대한 책임감을 자각하고 당이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오늘 농업생산성과로 당의 기대에 보답하는것이 우리 시대 농업근로자들의 응당한 도리이고 본분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어 온 나라 농촌이 부글부글 끓고 농산과 축산, 과수와 남새, 공예와 잠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산부문의 농근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과학농사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알곡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다수확열풍을 일으키도록 힘차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1t이상 증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최근년간 농업부문에서 수많은 다수확농장들과 작업반, 분조, 다수확자들이 배출되였는데 그 성과를 확대하여 모든 농근맹원들이 다수확자대렬에 합세하고 다수확운동이 농업근로자들의 집단적혁신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을 적극 받아들이고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앞뒤그루농사에서 다같이 옹근소출을 내며 콩농사와 감자농사열풍을 다시한번 고조시켜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벼와 밀재배면적을 늘이고 생산을 장성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백미와 밀가루를 공급하려는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밭으로 전환된 논들을 환원복구하여 논벼를 심고 물이 부족하거나 밭벼농사에 적합한 지역에는 밭벼를 심으며 밀농사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기본곡창지대인 황해남도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무겁습니다. 도안의 농근맹조직들은 알곡증산투쟁에서 황해남도가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야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개가가 울리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농사차비로부터 농사결속에 이르기까지 온 도가 농사열풍으로 부글부글 끓도록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나라의 식량문제해결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축산부문의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이 당이 제시한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은 젖소와 염소를 많이 기르고 젖생산량을 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을 중단없이 먹일데 대한 우리 당의 육아정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과수와 남새, 공예와 잠업부문의 농근맹원들이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당이 제시한 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고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며 농업생산구조를 바꾸고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는데서 근본열쇠는 종자문제를 해결하는것입니다. 농업과학연구부문의 농근맹조직들은 과학자, 연구사들이 과학농사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개척자답게 비상한 탐구정신과 창조적지혜로 두벌농사에 적합하고 소출능력이 높으며 불리한 이상기후와 지대조건에서도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학자, 연구사들이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연구도입하여 증산의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종단위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어디서나 종자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충실한 종자들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도록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관개부문과 농기계생산 및 수리부문의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에게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주어 그들이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실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이 땅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땅에 진심을 바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선렬들의 피땀이 스민 이 땅의 한줌의 흙도 자기의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고 뼈심들여 옥답으로 걸구며 한평의 땅도 류실되지 않게 보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못쓰게 된 농경지들을 제때에 환원복구하며 놀고있는 땅, 숨어있는 땅들을 모조리 찾아 부침땅면적을 최대한 늘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농근맹원들이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와 영농설비, 농기구들을 자기 집재산처럼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애호관리하도록 항상 관심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하도록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해마다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받는것이 기정사실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것만큼 농근맹원들이 품종배치와 파종시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재배방법을 개선하며 언제나 가물과 고온, 태풍과 큰물에 대비할수 있는 준비를 예견성있게 갖추어 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속에서 농업생산목표수행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고조시켜 그들의 혁명적기세와 증산열의를 높여주고 집단적, 련대적혁신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의 도입을 장려하고 두벌농사면적을 늘이며 저수확지들의 지력을 높이고 새땅을 찾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도처에서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26호모범기대단위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며 토끼기르기와 줄당콩심기, 유휴자재수집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도 널리 진행하여 나라살림에 보탬을 주고 인민생활에도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 호상간, 분조, 작업반, 협동농장들사이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서로 돕고 이끌어주면서 다같이 발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의 목표와 단계를 바로 설정하고 그 과정에 대한 장악지도를 짜고들며 총화와 평가사업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잘하여 사회주의경쟁이 대중자신의 자각적이고 진취적이며 애국적인 열의에 의하여 추동되여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새시대는 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거창한 변혁의 새시대에 농업근로자동맹은 지난날의 피동적이며 소극적인 일본새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활력있고 전투력있는 정치조직으로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여야 하며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관철하는데서 선봉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는것은 동맹조직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문제입니다.

각급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까지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여 전 동맹을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전례없는 변혁이 일어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동맹내부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사상교양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도식주의경향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교양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면서 나이와 수준, 성격이 각이한 동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참신한 사상교양방법들을 적극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초급선전일군들이 천리마대고조시기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처럼 동맹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서로 마음을 터놓을수 있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로동과 생활속에서 친밀하게 어울리며 그들의 사상을 적극 개조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급선전일군들은 강연선전이나 해설담화도 제강을 줄줄 내리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 농근맹원들이 당정책을 실지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도록 진실하고 구수하게, 현실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전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하며 로동과 생활의 모든 계기와 정황들이 효과적인 교양시간, 교양공간이 될수 있도록 늘 머리를 쓰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당출판물과 방송편집물, 다매체편집물을 리용한 교양사업을 기동성있게 전개해나가기 위한 방법론도 부단히 찾아 적용하여 사상사업의 침투력과 실효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조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을 동맹조직강화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동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동맹규약과 규범의 요구대로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맹생활총화와 정기총회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농사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회의록에 기록만 해놓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 동맹대렬관리사업을 잘하여 조직생활유리자, 미소속자들을 조직에 빠짐없이 소속시키며 그들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벅찬 투쟁에 스스로 뛰여들도록 품들여 교양하

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맹원들의 생활상고충과 애로를 헤아려주고 결함이 있다고 해도 믿음과 정으로 품어안아 깨우치고 이끌어 그들이 조직과 집단의 귀중함을 깨닫고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층조직들을 강화하는것은 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근본초석입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모든 초급단체들을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초급단체위원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이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동맹원들과 늘 함께 일하면서 조직사상생활을 책임지고 이끄는 초급단체위원장들이 실무수준이 높아야 대오의 기수가 될수 있고 기층조직들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되게 할수 있습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초급단체위원장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과 경험발표회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초급일군의 날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이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실현에로 동맹원들을 능숙하게 이끌수 있는 조직동원능력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원된 초급단체위원장들을 제때에 대책해주어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사상생활조직과 지도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동맹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농근맹위원회들에서는 기층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초급단체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실속있게 진행하며 동맹조직사상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령도업적단위의 농근맹조직들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령도업적단위의 농근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적교양거점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충실성의 전통을 꼿꼿이 이어나가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며 3대혁명수행과 농업생산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는 충성의 모범초급농근맹위원회, 충성의 모범농근맹초급단체쟁취운동이 기층조직들을 당에 대한 충성으로 불타고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에서는 기층조직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분석하고 동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할수 있도록 동맹생활지도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결정적으로 혁신하는것은 현시기 농근맹조직들의 전투력을 일층 제고하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농근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동맹원들을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당의 의도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습니다.

종전의 낡은 틀에 매달려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손쉽게 해먹으려는 형식주의는 농근맹조직들을 약화시키고 무맥하게 만드는 주적입니다.

농근맹일군들은 형식주의의 표현형태와 원인, 해독적후과를 똑똑히 알고 그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이 적당히 해나가는 구태의연한 일본새를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사업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해나가는것을 습벽화하며 문서와 회의로 사업을 대치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은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전개력으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동맹원들의 정치사상생활을 책임진 농업전선의 정치일군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농근맹원들속에 들어가 사업개선의 방법론과 묘술을 찾으며 실전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전자, 교양자가 되여야 합니다. 농근맹원들의 마음속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에 따르는 교양대책을 똑똑히 세울줄 아는 일군이 진짜 정치일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근맹일군들에게서는 언제나 구수한 땅냄새가 나고 농근맹일군다운 소탈한 멋이 있어야 합니다.

농근맹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농근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농근맹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농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생활화하고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주체농법과 선진농업과학기술에 밝을뿐 아니라 여러 부문의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닌 실력가형의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 농근맹사업을 종시하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바로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함에 있어서도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에만 낮을 돌리지 말고 농업근로자들의 정치조직인 농근맹사업을 활성화하고 농근맹조직들의 힘을 발동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근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농근맹일군들의 긍정적발기는 적극 지지하고 당적으로 밀어주면서 농근맹조직들이 언제나 활력에 넘쳐 일해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농근맹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동맹사업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여나가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농근맹기층조직들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당의 방침집행정형과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정형, 생활형편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편향은 바로잡아주고 교양대책도 세워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농근맹일군대렬을 당에 충실하고 군중의 신망이 있으며 동맹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갈수 있는 조직력과 전개력이 강한 일군들로 꾸려주고 그들에 대한 교양과 지도를 실속있게 하며 사업조건도 보장해주어 그들이 영예감을 가지고 사업에 전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농근맹일군들이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농촌핵심, 사회주의농촌의 정치활동가답게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땅에 진심을 바치면서 알곡증산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기 위해 애쓰는 농근맹원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정치적성장을 이끌어주어 사회주의농촌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농촌초급일군으로 키워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농근맹조직들에서 농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있는 동맹원들이 고향땅에 든든히 뿌리를 내릴수 있게 교양사업을 잘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도록 지도방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새시대의 투쟁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이 맡고있는 위치와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의 농근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숨결로 활력있고 기백있게 움직일 때 농촌의 주체사상화가 더욱 다그쳐지고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자랑찬 변혁적성과들이 이룩될것입니다.

나는 모든 농근맹조직들과 농근맹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백두산밀영고향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의 내부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어린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36(1947)년 3월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집, 혁명의 고향집이다.

조종의 산이며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기슭에 자리잡은 이 소박한 귀틀집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였다.

백두광명성의 탄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기약하는 찬란한 해돋이였고 조선의 영광, 인민의 가장 큰 행복이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혁명의 고향집이다.

백두산밀영고향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에 애용하시던 나무권총을 비롯한 놀이감들과 키낮은 책상, 항일의 녀대원들이 그이께 마련해드린 쪽무이포단 등이 보존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력사의 고향집에서 백두밀림의 울부짖는 눈보라와 항일의 총소리를 들으시고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대전의 준엄한 시련을 체험하시며 성장하시였다.

고향집주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돐을 경축하여 몸소 쓰신 송시 《광명성찬가》를 새긴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그리고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백두광명성》,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등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칭송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쓴 구호나무들이 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의 뒤에는 백두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이름지은 정일봉이 높이 솟아있다.

*　　*　　*

애국헌신의 한생

그리움속에 해가 뜨고 지는 조국땅에 광명성절(2.16.)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자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다가 너무도 뜻밖에 우리 곁을 떠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조국 인민은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더욱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지난 10년간은 그이께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신 나날이였고 그이의 사상과 위업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줄기차게 실현되여가고있음을 내외에 보여준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누리에 빛내이시고 겨레에게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신 영원한 태양의 력사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이께서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맹세는 세상만방에 조선을 빛내이시는것이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이 그이의 삶의 목표였고 보람이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167만 4 610여리,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어가신 그 현지지도로정을 새겨볼수록 그이께서 하신 교시가 되새겨진다.

조국앞에 가로놓였던 난국이 타개되고 전환의 려명이 밝아오던 어느해 1월 1일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가장 어렵고 간고한 시기를 극복하였다고, 자신께서도 정말 의지의 힘으로 극복해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인생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다른것이 아니다.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

돌이켜보면 1990년대중엽 조국과 인민앞에는 참으로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기회로 더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여러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오는 식량난…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엄혹한 시기 그이께서는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길을 더욱 억세게 걸어가시였다.

사탕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끊임없는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다박솔초소와 최전연의 판문점, 초도, 대덕산, 오성산, 철령…

그 나날에 쪽잠과 쥐기밥,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심야강행군과 같은 일화들이 생겨났으며 그 일화들은 그이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눈물겹게 전하고있다.

어느해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장군님께서는 밤이 퍽 깊어서야 저녁식사를 하게 되시였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인민생활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쓰시였는데 자신께서는 아직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지 못하고있다고, 그것을 생각하면 밤잠도 오지 않고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던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이의 다음교시를 기다리던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쪽잠에 드신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몇분간이였다.

이윽고 쪽잠에서 깨여나신 그이께서는 동무들, 미안하오, 온종일 다녔더니 너무 곤하여 잠간 졸았소, 나는 이제 또 몇개의 공장들과 군부대들을 더 보기 위해 떠나야 하오라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시였다.

한생을 오로지 그렇게 이어오신 장군님이시였다.

전시도 아닌 평화시기에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쪽잠으로 한밤을 지새우시고 쥐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날과 달을 보내시고 초인간적인 의지로 초소를 찾으시며 공장과 농촌 등을 쉬임없이 찾고찾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두번째 해에 들어선 조국은 무수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주저와 동요, 굴함을 모르고 자기 발전의 침로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조국에서는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경제, 문화, 국방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 눈부신 성과들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고있다.

이 현실은 부강조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시려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시기 위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시였다.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의 인민들이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으로 명명해주시였으며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강계정신에 이어 성강로동계급의 가슴속에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도록 하시려 애국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대고조의 열풍속에 조국땅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하는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웠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선진기술과 국내의 연료에 의거하는 비료를 생산하였다. 자립경제의 기둥을 떠받든 제철, 제강기지들에서 주체

룡양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전선길에 계시였기에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고 군사강국으로 되여 인민이 대대손손 자주적으로 존엄높이 살아갈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야전복차림으로 찾고찾으신 조국방선초소들로부터 공장과 건설장, 협동벌, 상업봉사기지들과 인민들의 살림집마다에는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강국건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바치신 그이의 로고의 자욱과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만난시련을 헤치시며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이의 불굴의 헌신으로 하여 조국땅우에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첨단을 돌파한 CNC설비들, 주체화가 실현된 철생산과 비료생산, 비날론생산과 마그네샤크링카공업이 확립되고 도처에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일떠섰으며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 희한한 사회주의선경 등 다계단으로 일어난 사변들과 창조물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불보다 뜨거운 열과 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생의 마지막날까지 그이께서는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시였다.

오늘도 인민은 12월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하나음악정보쎈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아주신 장군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하나음악정보쎈터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훌륭한 명곡들을 더 많이 들려주게 된 기쁨이 그리도 크시여 자신께서 지난 수십년동안 체계적으로 수집한 음악작품들을 모두 보내주겠으니 그것을 입력시켜 우리 인민들이 널리 감상하고 리용할수 있게 하라고 하시였다.

광복지구상업중심에 들리시여서는 상품들을 가득히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씨인데도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은 자신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장군님의 그 모습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이의 마지막모습으로 될줄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인민이였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겹쌓인 과로로 침습한 무거운 병상태로 하여 시급히 치료를 받으셔야 할 몸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하게 될 그날을 앞당기시려고 초인간적인 의지를 안으시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한생을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태양의 빛과 열은 영원하다.

자신의 온넋을 깡그리 바치시며 애국헌신으로 한생을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본사기자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6월

철생산체계가 확립되였고 온 나라에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추진되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고생속에서 이룩된 결실들이였다.

어느해 3월에는 1 000여리의 강행군으로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시였고 주체98(2009)년에는 눈비를 맞으시며 200여개의 단위를 찾고찾으시였다.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그이의 자욱은 동력, 공작기계, 륜전기계, 건재, 농산, 축산, 과수, 양어, 가금,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겨져있으며 그 길우에 솟아오른 창조적재부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장막을 밀어내고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과연 무엇이 그이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었기에 고난과 시련속에서 그처럼 거창한 변혁들을 이룩하시며 강국건설의 토대를 억척으로 다져놓으실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이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은 불굴의 정신력과 강의한 인내력을 발휘할수 있게 한 무한한 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빛나고 있다.

조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국방력강화에서의 특대사변들, 세월을 주름잡으며 이 땅우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날에날마다 기적들이 창조되는 조국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토대우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금속공업의 주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과수농장에서의 과일수확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3월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7월

규격포전으로 정리된 한드레벌

전민학습의 대진당으로 꾸려진 인민대학습당

인민들이 선호하는 식료품들이 생산된다.

병사들의 친어버이

멀리에 있건 가까이에 있건 자식들에게로 마음을 달리는것이 어머니들의 심정이다.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병사들에게 뜨거운 정과 열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은 다심한 친어버이사랑이였다.

언제인가 전연의 대덕산초소를 시찰하시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부디 최전연에만은 나가지 말아주실것을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나에게 전연지대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금 전연초소에서는 나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다, 나는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아들딸들의 군무생활을 료해하고 그들을 고무해주어야 하며 그러자면 전선지대에 찾아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의 아들딸!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에는 병사들에 대한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이 응축되여있다.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초소에 세운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으시고 병사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시였다. 인민군부대를 찾으실 때마다 병실이며 식당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가마마차에까지 오르시여 군인들의 식생활을 두고 마음쓰시였으며 부모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최전연초소에서 그들의 자식들을 만나주시였다.

비구름이 질어가는 어느날 한 중대에 가시여서는 그길로 사진부터 먼저 찍자고 하시며 일정도 바꾸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 걸으신 그 길은 최고사령관의 전선시찰의 길이기 전에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 어버이의 길이였다.

직무상으로 보면 최고사령관과 병사는 아득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병사들을 한치의 간격도 없는 친혈육으로, 더없이 귀중한 동지로 여기시였다.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위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였기에 장군님께서는 그렇듯 위험천만한 최전연초소들에도 한몸을 내대고 가실수 있은것이였다.

언제인가 전선지대의 오성산을 참관하였던 어느 한 나라의 대사관무관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오성산에 여러번이나 오르셨다기에 아마도 이곳에 어떤 위력한 신형무기나 대공격집단이 진을 치고있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험하고 높은 령길을 톺아보니 평범한 병사들밖에 없었다. **김정일**장군님은 바로 그 병사들을 통하여 선군정치를 받드는 이 나라의 수백만 장병들의 모습을 보시였을것이다.》

인민군병사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에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가 이루어지게 하고 인민군대를 동지적단결의 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킨 근본원천이였다.

본사기자

최전연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9월

일 화

축복받은 가정들

대홍단군종합농장의 제대군인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3월

태여날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시며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9(2000)년 3월 량강도 대홍단군의 한 제대군인가정을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아버지장군님, 아직 친부모도 와보지 못한 저의 집을 장군님께서 제일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목메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제대군인부부에게 그이께서는 우리 제대군인들의 신혼살림집에 내가 제일먼저 와야지 누가 오겠는가고, 언제 결혼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새색시는 처녀때 평양에서 대홍단군으로 진출한 녀성이였는데 젊은 남편이 멋적어하며 주밋거리자 군의 책임일군이 1999년에 결혼하였다고, 지금 집주인의 안해가 임신중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것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제대군인의 안해에게 해산달이 언제인가고, 아들을 낳을수 있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해산달이 7월이고 꼭 아들을 낳겠다는 안해의 대답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런데 갑자기 새색시가 그이께 귀속말로 무엇이라고 속삭이였다.

그이께서 미처 가려듣지 못하시자 새색시는 그이의 팔을 감싸쥐며 다시 말씀드렸다.

《아버지장군님, 아이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너무도 외람된 청이여서 일군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전혀 탓하지 않으시고 《벌써 이름을 짓잔 말이지.》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겠는가고, 그때에 가서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였다.

그날 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제대군인가정에 들리셨던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원래 아이이름은 아버지가 짓게 되여있는데 제대군인안해의 간절한 부탁인것만큼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자고 하시였다.

《아들을 낳게 되면 대홍이라고 하고 딸을 낳게 되면 홍단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이름이였다. 그후 그 제대군인가정에서는 홍단이가 태여났다.

구봉령의 새 전설

어느해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차는 자강도의 여러 단위를 찾아 쉬임없이 달리고있었다.

차창으로 자강땅의 유정한 전경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봉령가족일가가 잘 있는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외우시였다.

오래전에 만나본 평범한 김성녀도로관리원일가의 안부를 물으시니 일군들은 선뜻 무슨 말씀부터 올려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였다. 이때 한 일군이 구봉령가족일가가 그이께서 자강도를 찾으실 때마다 령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을 그리워한 사실을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구봉령에서 김성녀동무를 만나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그를 만나보아야 할것같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구봉령의 김성녀일가를 만나주신지도 어언 11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동안에 구봉령지구는 희한하게 전변되였다.

뜻깊은 그날 그이께서 깨우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이다음에 커서 기념사진을 보면 잠을 자고있은것을 후회할것이라고 하신 갓난아이도 어엿한 소년단원으로 자라났다. 가족도 16명으로 늘어났다.

흐르는 세월속에 많은것이 달라졌어도 구봉령일가에 대한 그이의 그리움은 변함이 없는것이였다.

일군들에게는 그이께서 구봉령을 처음 찾아주시였던 일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그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은정을 받아안은 김성녀로인과 가족은 그이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진정을 담아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니 이제 더는 험한 길을 걸지 말아주십시오.》

그이께서는 로인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도안의 인민들이 잘살게 되였으니 더는 험한 길을 걸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도로라면 온 나라 어디에든지 다 가보겠다고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구봉령은 그이의 마음속에 잊을수 없는 봉우리로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10월의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끝내 시간을 내지 못하시였다. 구봉령일가를 만나지 못하시는 아쉬움을 달랠길 없으신듯 그이께서는 그들이 기다리고있을것이라고 거듭 외우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일군들이 구봉령일가를 찾아가보도록 하시였다.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군들로부터 구봉령일가의 소식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들이 모두 잘 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김성녀로인을 친히 로력혁신자,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평양에 초청하시였다.

평양견학의 나날 김성녀로인은 뜻깊은 연회석상에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구봉령도로관리원일가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먼동이 터오는 이른새벽에
간절한 소원 안고 이 길을 쓰네
… …

본사기자

주체문학예술의 개화기를 펼쳐주시어

- 문화성 국장 려광민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얼마전 본사기자는 려광민 문화성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고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많이 받은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의 심정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문학예술이 시대를 선도하고 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과 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예술로 되도록 령도하시였다.

국장: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에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킬것을 발기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옮기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영화예술로 정하시였으며 거기에서 이룩된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대본완성으로부터 배우들의 연기와 의상, 소도구, 음악형상을 비롯하여 영화의 전반에 그이의 심혈과 로고가 깃들지 않은것이 없다.

그이께서는 대본이 원작에 충실하도록 창작가들을 일깨워도 주시였고 어떤 때에는 배우들의 기량발표회도 지도해주시였으며 때로는 하나의 장면완성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기간 언제나 영화예술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처음으로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를 지도해주신 때로부터 《최학신의 일가》, 《유격대의 오형제》, 《처녀리발사》,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평양날파람》, 《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영화창작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기자: 5대혁명가극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도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예술적 천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에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인 노래를 절가화하고 가극에 방창을 널리 도입하도록 하시였으며 무용을 극과 밀착시키고 생활의 본질과 론리에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립체화된 흐름식무대를 창조하시여 종래 가극의 낡은 틀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시였다.

국장: 옳은 말이다.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성과에 토대하여 연극혁명도 일어나 오늘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은 5대혁명연극들이 창조되였다.

당시 연극부문에는 우리 식이 아닌 낡은 틀이 고질적으로 남아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연극예술은 조락의 운명에 처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성과에 토대하여 연극혁명을 일으키도록 하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혁명연극의 첫 본보기작품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초기배우들은 풍자극이라고 하여 생활론리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웃기려고만 하였다.

그이께서는 풍자극이라고 하여 사람들을 웃기려고만 하여서는 안된다, 웃음이 많게 하면서도 생활은 어디까지나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풍자극이 생활의 론리에 따라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게 끌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밖에도 음악을 성격형상의 수단으로, 극흐름의 공간을 없애고 극적감흥과 정서를 지속적으로 안겨주는 수단으로 받아들여 연극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을 연극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 현실을 그대로 보는것처럼 펼쳐보일데 대한 문제 등 혁명연극창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혁명연극 《성황당》을 무대에 올린 경험에 기초하여 련이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딸에게서 온 편지》, 《혈분만국회》, 《3인1당》, 《경축대회》를 《성황당》식혁명연극으로 훌륭히 형상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연극혁명의 성과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주체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변혁이 일어났으며 년대기들마다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좋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혁명연극들인 《소원》,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 《승리의 기치따라》, **김일성**상계관작품들인 경희극 《산울림》,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기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데 대한 농촌주제의 경희극 《산울림》창조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50(1961)년에 창작되여 인기를 모았던 경희극 《산울림》은 거의 50년이 흐른 주체99(2010)년에 또다시 창조되여 무대에 올랐으며 대파문을 일으켰다. 경희극은 새 세기 연극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국장: 연극뿐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영화부문에서 민족의 운명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도록 하시고 문학예술부문에서 또 한번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깊이를 가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조선영화의 얼굴로 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 민족적이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음악에서 우리의 고유한 민족적선률을 옳게 살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노래를 유순하고 부드럽게, 인민대중이 리해하기 쉽게 만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공훈국가합창단의 힘찬 노래로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또한 교예, 무용부문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현대적인 미감에 맞는 교예, 무용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영화예술론》, 《음악예술론》, 《주체문학론》, 《미술론》, 《무용예술론》, 《교예론》은 우리 주체예술을 새로운 비약과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게 한 강령적문헌이다.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들을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참다운 예술로 될수 있었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린 선물들의 일부(국제친선전람관)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세계의 백수십개 나라와 국제기구들, 각계인사들이 그이께 수많은 선물과 훈장, 메달, 명예칭호와 상장들을 드리였다.

세계 백수십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 및 지역기구 인사들이 마련한 선물들중에는 위대한 정치가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 중국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세대를 이어 보내여온 자개박이옻칠벽걸이, 제직화《송령학수》, 로씨야의 국가수반들이 올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를로브원종말들과 사냥총, 단검, 꾸바의 국가지도자들이 드린 악어가죽가방, 자동보총, 대리석탁상등, 인두화《몬까다병영습격》 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실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뽈럭불가담운동창시자의 한사람인 전 유고슬라비아대통령 찌또가 드린 금손목시계,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마련하여 보내여온 디마스끄장검을 비롯하여 전 라오스국가주석 쭘말리 싸이냐숀 등이 올린 선물들도 있다.

캄보쟈의 대왕이였던 노로돔 시하누크는 정의의 위업에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그이께 주체62(1973)년에 처음으로 두 나라 기발이 새겨진 금속공예품 등을 드린 때로부터 70여점에 달하는 선물을 올리였다.

그이를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칭송한 이딸리아국제그룹리사장 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수백점에 달하는 선물을 드리였으며 수리아의 한 인사는 600년동안 가보로 물려오던 유물을 포함하여 10여년간에 걸쳐 수많은 선물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대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장울화, 주보중, 풍중운, 상월, 호진일, 채세영을 비롯한 중국의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올리는것을 전통화하고 가풍으로 이어왔다.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 전 일본수상 고이즈미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고위인사들도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고매한 풍모에 매혹되여 삼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수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해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기네의 민족공로대십자훈장, 꾸바의 련대성훈장, 로씨야의 10월혁명훈장들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0돐 기념메달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정부, 국회들, 국제기구, 단체들에서 많은 훈장과 메달들을 수여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 및 당수들과 정당들 그리고 세계의 권위있는 과학원, 대학, 국제기구, 단체들, 많은 도시들에서 올린 연200여차례의 명예칭호를 받으시였다.

주체83(1994)년 9월 베닌혁명당이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한 때로부터 방글라데슈인민련맹, 꼬스따리까인민당, 메히꼬의 뿌에블라기자련맹을 비롯하여 여러 정당, 조직들에서 명예지도자, 명예위원장으로 모시였다.

그이께 로씨야련방 안전, 국방 및 법질서문제과학원에서 정성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원사칭호를 수여해드리였으며 베네수엘라 야깜부종합대학, 뻬루 깔랴오국립종합대학 등에서도 철학, 정치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교육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명예원사, 교수, 박사칭호들을 드리였다.

주체76(1987)년 4월 마다가스까르 또아마시나시에서 그이를 명예시민으로 추대한 이후 수리아, 우간다, 메히꼬, 꼴롬비아 등 여러 나라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명예시민증서와 시열쇠를 올리였다.

그이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이후에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변함없이 이어져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진보적인민들은 년대를 이어가며 그이를 칭송하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였던 비슈와나스가 올린 금도금목걸이, 로씨야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진협회대표단이 올린 유리꽃병을 비롯한 선물들마다에도 그이의 영생을 바라는 만민의 뜨거운 지성과 흠모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이처럼 세계5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린 진귀한 선물들은 그이를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러러따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절절한 그리움의 결정체이다.

본사기자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과 당수들, 국가수반들과 개별적인사들, 국제기구들과 지역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린 훈장과 메달들을 전시하여놓은 훈장보존실의 일부(금수산태양궁전)

좌담회

오로지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김순옥 : 중앙동물원 작업반장, 로력영웅 공훈사양관리공
허광춘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원장,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백승란 : 국립연극단 과장, 김정일상계관인 인민배우
엄향심 : 본사기자

김순옥

허광춘

백승란

기자: 안녕하십니까. 산을 봐도 들을 봐도, 스치는 바람결마저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한없이 불러일으켜주는 2월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그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칩니다.

그이를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웠던 여러분들의 심정이 남다르리라 봅니다.

허광춘: 위대한 장군님은 오로지 인민을 위해, 조국의 부강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0돐이 되는 2월을 맞고보니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그이의 로고가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나라 북변의 두메산촌으로부터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발자취가 찍혀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김순옥: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였고 삶의 전부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바치신 모든 헌신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인민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언제나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였습니다.

백승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민들과 한식솔이 되여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였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자신의 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였습니다.

허광춘: 지금도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 우리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 오신 그이를 만나뵙던 때가 방불히 떠오릅니다.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날 그이께서는 우리 분원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두뇌전, 기술전을 벌려 이룩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과 착상안들을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고 주의깊게 보아주시였습니다.

종전의 검사시약보다 생산원가는 대폭 낮으면서도 비루스검출률이 높은 감자비루스검사시약을 보신 그이께서는 환상덱스트린앞에 이르시였습니다.

제가 포도당 7개 분자가 고리형으로 결합된 환상덱스트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 그이께서는 그러니까 교갑을 씌운것과 같다고 하시며 과학자들이 요술사들같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완성한것을 보시고는 너무 기쁘시여 그것을 연구한 청년과학자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분원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최근시기 생물공학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사람들에게 생물기술에 대한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우리 분원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크게 부각시켜주시였습니다.

시종일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문제를 연구했다고 거듭 뇌이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를 우러를수록 우리의 눈굽은 젖어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연구한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자그마한 싹에 불과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가닿게 될 혜택을 헤아려보시였습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도 꽉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그이의 기쁨과 락은 바로 인민의 행복이였습니다.

김순옥: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민의 기쁨에서 행복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인 우리 중앙동물원에도 여러 차례나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으며 동물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동물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지식을 넓혀주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사양관리공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주체68(1979)년 2월 어느날 맹수사에 오신 그이께서는 맹수들이 던져준 먹이를 앞발통으로 날쌔게 후려치는 동작을 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그 모양을 보시다가 맹수를 관리하다 해를 입을수도 있으므로 먹이를 줄 때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이르시면서 철창이 든든한가를 몸소 확인해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저에게 몇살인가, 무섭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사실 처음 먹이를 넣어줄 때에는 여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맹수의 앞다리가 구멍으로 나와 돌이킬수 없는 사고가 날수도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저는 불시에 목이 메여올라 무섭지 않다고 겨우 대답올렸습니다.

곁에 있던 동물원의 책임일군이 저를 가리키며 처녀때부터 범을 사양관리하는 유능한 동무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이께서는 저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범의 수명은 얼마이며 새끼배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등을 세세히 료해하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차례나 동물원을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관리공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 동물원에서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사시절 울려나올수 있었습니다.

기자: 이야기를 들을수록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한가득 차오릅니다.

그이께서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가시여 생활형편도 알아보시고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구석구석 헤아려주시였습니다.

백승란: 옳은 말입니다.

수 기

어버이의 축복속에 우리 삽니다

우리 집에는 가보로 전해지는 기념사진들이 모셔져있습니다.

12년전 새로 입사한 집에 찾아오시여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가족과 기념으로 찍어주신 뜻깊은 사진입니다.

그날은 주체99(2010)년 10월 8일이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완공된 국립연극극장을 돌아보시고 새집들이경사로 흥성거리는 우리 연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살림집들도 찾아주시였습니다.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려받은것만도 크나큰 행복인데 새집들이하는 저희 가정까지 찾아주시였으니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가족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어조로 식구들에 대하여 물으시고나서 새집들이를 축하하여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사진을 찍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의 어머니에게 딸을 키우느라고 수고하였다고 하시며 가족과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습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결혼하고 새집들이한 최금향동무의 집에 오면서 성냥을 비롯한 기념품을 가져왔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세간난 딸의 집을 찾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방들의 구조와 가구배치정형, 부엌세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웅심깊은 사랑을 모르며 성장한 저로서는 그이의 다심하고 세심한 보살피심에 눈굽을 적시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 날은 주체99(2010)년 4월 26일이였습니다.

화창한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국립연극단에서 재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려 극장으로 나오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대에 선지 겨우 2년밖에 안되였던 저는 연극의 녀주인공인 금단역을 맡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배우들이 연기를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현실체험을 해보지 못한 동무들인데 흙냄새가 나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나무랄데없이 형상하였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공연을 보아주신것만도 더없는 영광인데 신인배우들이 연기를 진실하게 잘한다고 저의 이름까지 불러주시였으니 기쁨이면 이보다 더 큰 기쁨, 긍지면 이보다 더한 긍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날 공연에서 저희들이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수십년전에 창작되였던 경희극 《산울림》의 생명력을 헤아리시고 오늘의 실정에 맞게 재창조할데 대한 파업을 주신분도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해 5월 8일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길로 경희극 《산울림》을 또다시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도 국립연극단 책임일군들과 함께 주역배우들을 몸가까이에 불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동안 공연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며 저희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습니다. 정말이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한 사랑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입니다.

무대배우로서 첫 문어구에 들어선 신인배우에 불과한 저를 온 나라가 아는 경희극 《산울림》의 녀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신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새집들이하는 우리 가정에까지 찾아오시여 축복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남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부모도 줄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한없이 은혜로운 품입니다.

저는 위대한 어버이의 영원한 축복속에 사는 긍지를 안고 언제나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한생을 빛내여나가려고 합니다.

국립연극단 공훈배우 최금향

우리 집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뜨겁게 슴배여있습니다.

주체99(2010)년 10월 8일 그이께서는 국립연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새집들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살림집들을 찾아주시였습니다.

마중나온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시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원통식으로 특색있게 건설한 살림집주변을 둘러보신 그이께서는 예술인살림집의 위치가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6층 3호인 저의 집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부엌의 더운물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손수 수도꼭지를 돌려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새집들이를 한 딸자식의 집에 온 친부모의 심정으로 부엌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나는 오늘 동무의 새집들이를 축하하여주려고 오면서 우리 민족의 풍습대로 성냥과 그릇을 비롯한 가정용품들을 가지고왔습니다.》라고 정담아 교시하시였습니다.

친부모도 아직 와보지 못한 새집에 제일먼저 찾아오시여 새집들이기념품까지 안겨주시는 그이의 은정이 너무 고마워 저는 격정에 목메이였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장군님은 인민들의 마음속생각과 생활상편의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다심하고 사려깊으신 인민의 령도자이십니다.

그이께서는 마치 세간난 딸자식의 집에 온 친정아버지처럼 쏘파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TV가 잘 나오는가를 유심히 보아주시며 가족공연도 관람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둘째딸의 시와 남편의 노래를 들으시고 남먼저 박수도 쳐주시며 온 가족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주체100(2011)년 7월에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보아주시고 주인공이 연기를 잘한다고 거듭거듭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정녕 우리 장군님은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우리모두의 친어버이,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인민을 위한 한생이였습니다. 하기에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것입니다.

허광춘: 지금 우리 과학자들은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탐구의 날과 달을 보내고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심정은 여러분들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한 여러분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 *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심양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렬한 격찬의 목소리는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인 허종만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을 정립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공화국을 존엄높고 권위있는 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하신 희세의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그이는 조국의 흥망을 판가리하는 1990년대에 주체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악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시고 주체조선을 무적필승의 군력으로 위용떨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 최수봉은 항일의 총포성이 울려퍼지는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열화같은 애국의 넋과 결사헌신의 정신을 키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거룩한 영상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멀리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을 보살펴주시였으며 해외동포들의 마음의 기둥이 되시여 조선민족의 넋을 지켜 변함없이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해외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며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로씨야련방 연해변강고통련부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5천년 우리 민족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의 영웅, 백두산의 아들, 위대한분이시라는 표현보다 더 훌륭한 표현을 찾을수 없는것이 유감이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힘이 약하여 강대국들의 침략과 업수임만을 받아오던 조선을 그 누구도 감히 넘겨다볼수 없는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나호드까조선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험한 길이란 길은 다 걸으시며 나라와 인민, 민족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바치시였다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하였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령도도 풍모도 꼭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은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일해왔는가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였다,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의 아들 현종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연고자가족들의 운명이시고 하늘이시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그이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국은 자주의 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였으며 우리도 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살아올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태양같은 미소로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고계신다.

* * *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광명성절경축 사진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재중동포들

흠모의 마음은 지성어린 선물에도

그리움을 안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를 많이 받은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그이께서는 공장에 10여차례나 찾아오시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2. 16.)을 맞게 되는 공장의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다.

리용근지배인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사적비앞에 서면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질좋은 옷감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늘 당부하시던 그이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방직설비를 현대화, 고속도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많은 방직설비들을 새롭게 갱신하여 현존생산능력을 높이였으며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이와 함께 수많은 발명과 창의고안, 합리적인 생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해에 다녀가신 견방종합직장 인견천직장에서는 최근년간에 만도 수압직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직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그것은 곧 생산실적에로 이어졌다.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리명순을 비롯한 직포종합직장의 직포공들은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기준정량의 2~3배나 되는 기대들을 맡아안고 합리적인 순회길도 찾으면서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지난해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기능공경기대회-2021》 직포공, 정방공경기에서 우승한 정방공 김윤경을 비롯한 방적종합직장 청년정방직장의 정방공들도 다추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윤경은 《8년전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많은 천을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에 하신 그이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 들어와서도 월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공장에 울리는 증산의 동음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이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건군절과 더불어 빛나는 행로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어언 74년이 되였다.

건군의 첫 기슭을 떠난 때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수놓아온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충분히 통제관리할수 있는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부강조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왔다.

오늘 조선인민군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보위하는 강위력한 무장력으로 자랑떨칠수 있은것은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해방[주체34(1945)년]된 후 정규무력을 하루빨리 건설하는것은 공화국을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특히 나라의 절반땅을 외세가 강점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국가발전의 전도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건군을 새 조국건설의 주요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해방은 되였으나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하여 국고마저 텅빈 당시의 형편에서 군종, 병종, 전문병을 다 갖춘 현대적인 정규무력을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자주독립국가의 존엄도, 새 사회건설의 성과도 담보될수 있다는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시고 정규무력건설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그이의 심혈과 로고속에 평양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들이 조직되고 항공대, 수상보안대, 포병, 땅크병, 공병, 통신병을 비롯한 병종, 전문병부대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조직된 군종, 병종부대들에서 우리 식의 군사규정과 교범, 부대지휘관리방법과 전법을 구현하도록 하시는 한편 각종 무장장비와 군수물자를 비롯하여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도록 하시였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을 헤쳐온 투사들을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들에 파견하시여 그들이 군사정치간부들을 육성하며 각 군종, 병종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는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알리는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의 모체부대를 꾸리는데서 주도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시고 몸소 강의도 하시면서 군사교육과 전투훈련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병기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을 나라의 흥망,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신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찾으셔야 할 곳들이 많았지만 평양의 평천벌에 병기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고 공장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해방후 령이나 다름없는 빈터우에서 현대적인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원만히 갖춘 정규무력이 건설될수 있었다.

마침내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알리는 열병식이 거행되였다.

그처럼 소원하던 인민군대창건으로 조선인민은 피눈물나던 지난날 망국민의 쓰라린 치욕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였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운명과 자주권을 지킬수 있는 군사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지금도 건군의 그날 총검을 비껴들고 입김을 날리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던 인민군대의 열병식이 생동한 화폭으로 기록되여있다.

이 나라 아들딸들의 미더운 무장대오, 강철의 대오가 서리발총창을 번쩍이며 보무당당히 행진한 그 길은 백두에서 시작된 성스러운 민족자주위업수행의 길이였고 자주독립, 부강번영의 새로운 승리에로 가는 길이였다.

이 력사의 길은 전승열병식 광장에로 이어졌다.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위업과 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국방력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들과 포연서린 전투훈련장들을 찾고찾으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며 적대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제압할수 있는 최정예강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위대한 령장의 전략적구상과 비상한 결심, 확고한 의지에 의하여 병진로선이 제시되고 최첨단무장장비들을 갖춘 자위적국방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지난날 화승총 하나 변변히 만들수 없어 종당에는 침략세력에게 짓눌리여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야 했던 인민이 이제는 외세의 침략과 위협공갈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게 되였다.

지난해에만도 나라의 자립적인 첨단국방과학기술력을 비상히 높이고 자위적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미싸일《화성-8》형을 비롯한 신형무기들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전례없는 2차례의 심야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자위의 굳건한 성새를 이룬 일심일체의 참모습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창건 76돐을 맞으며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지난 5년간의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렇듯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고 힘이다.

2월 8일, 바로 이날이 있어 조국인민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세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세력들의 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었다.

하기에 건군절과 더불어 빛나는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행로는 위대한 령장들을 모시여 강군이 있고 강국이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만사람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최정예강군의 위용떨치며 나아가는 열병대오들 주체109(2020)년 촬영

북창의 전력생산자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는 조국에서 굴지의 전력생산기지이다.

기업소는 석탄과 물자원이 풍부한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하고있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업소는 지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력생산으로 들끓고있다.

리창수기사장은 《전원회의에서는 전력공업부문에서 당면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기업소에서는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기업소에서는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다같이 추진시키는것을 국가의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실현하며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무엇보다 모든 종업원들이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발전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전력생산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호기들의 대보수와 중보수, 주

기보수를 계획대로 추진시키는 한편 과학연구단위들과의 협동밀에 현존설비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고있다.

이 과정에 기업소에서는 내열세멘트생산공정과 뽈생산공정을 확립함으로써 설비운영과 보수에서 제기되는 자재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결과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이 정비보강되고 발전설비들의 출력과 호기당 가동일수를 비롯한 기술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전망생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날로 확대되고있다.

자립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을 생산하는 담당자라는 책임감을 안고 1㎾의 전력이라도 더 증산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겠다는것이 기업소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하나와 같은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산림조성의 척후병들

국토면적의 거의 80%가 산으로 되여있는 조국에서는 최근년간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에 특별한 힘을 넣고있다. 이미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 조국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별목표가 세워지고 이 사업이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각지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이 꾸려져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생산되여 해마다 산림면적이 늘어나고 이미 있는 산림들의 조성이 달라지고있다.

그 앞장에는 산림연구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서있다.

주체37(1948)년에 창립된 산림연구원은 지난 기간 나라의 산림조성과 보호육성, 산림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있는 연구집단이다.

최근년간에만도 연구사들은 경제적가치가 크고 조국의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육종하여 산림복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산림육종학연구소에서 자래운 키낮은잣나무와 스트로브스소나무이다. 스트로브스소나무만 보아도 보통 40년이상 자라야 종자로 될 열매가 달리지만 새 품종은 10년생부터 종자로 리용할수 있으므로 번식속도를 높일수 있고 조림속도도 지난 시기의 6~8배나 된다고 한다.

경제림연구소에서는 접방법에 의한 잣나무품종림조성기술을 연구도입한데 이어 뿌리접방법으로 백수십만그루의 우량품종밤나무모를 생산하여 전국에 도입하였다.

이들이 연구한 접방법에 의한 잣나무품종림조성기술을 도입하면 일반잣나무림들을 모두 우량품종으로 바꿀수 있다. 벌써 전국의 수백정보의 나무림들이 새 품종으로 개조되였다.

리현성소장은 《우리가 처음 연구결과를 내놓고 도입하자고 했을 때 주춤하며 후에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과학기술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가 등불이 되여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모두가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작업은 방대하고 시간도 촉박하였지만 우리는 대중과 힘을 합쳐 끝끝내 적기에 끝낼수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연구집단은 맛이 좋으면서도 정보당 생산성이 높은 산열매나무들을 풍토순화시켜 널리 퍼치고있다.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연구원에서는 전국의 토양상태, 비탈상태, 나무수종 등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합리적인 산림건설방안을 작성하였으며 나무의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하면서 초기성장률을 배로 끌어올릴수 있는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들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부문의 기술자, 근로자들이 산림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산림식물전자사전 《푸른숲》4.0과 과학기술보급용자료열람체계 《산림의 벗》을 개발하여 전국에 도입하였으며 여러가지 효능높은 농약을 연구개발하고 시비체계와 방법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것을 비롯하여 연구성과들을 확대해나가고있다.

리호철 산림연구원 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밑거름과 자양분이 많아야 알찬 열매가 풍성하게 달릴수 있듯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모든 산들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될수 있으며 산림복구사업도 빛나게 결속될수 있다. 우리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의 척후병이라는 사명감을 항상 안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박사형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원탐측공학부 지구물리연구소 소장 김강섭과 전기공학부 전기기계기구연구소 실장 김은섭은 형제지간이다.

이들은 전공분야에서 높은 실력을 지니고 과학연구사업으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형인 교수 박사 김강섭은 지구물리탐사분야의 권위자이다. 그는 30여년간 대학의 교원, 연구사, 강좌장을 거쳐 소장으로 사업하면서 광산, 탄광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 나날 전기탐사에서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자료를 얻을수 있는 비저항영상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무연탄, 지하수 등 지하자원탐사와 심부탐사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비저항영상화는 탐사부문에서 유용하게 리용되고있으며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는것으로 하여 환영을 받고있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안고 그는 지층탐사에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도 손쉽게 해결할수 있는 여러건의 소론문을 SCI, EI급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국제과학발표회참가초청을, 지구과학분야의 다른 나라 학회, 협회들로부터는 회원가입초청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물리탐사자료계산기해석》, 《초현리론과 자연전자파탐지》를 비롯하여 많은 교과서, 도서들도 집필하였으며 적지 않은 석사, 박사들도 키워냄으로써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동생인 김은섭실장도 전기기계분야의 실력가이다.

그는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에서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던 전동기를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였으며 어랑천발전소를 비롯하여 여러 발전소건설장들에 필요한 대형발전기들의 효률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였다.

이때 완성한 《동기발전기의 부하조건을 고려한 자기마당해석방법과 효률개선에 대한 연구》는 후날 박사론문으로 되였다.

동생은 늘 앞서나가는 형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언제인가 퇴근길에 올랐던 그는 형의 집에 밤늦도록 불이 켜져있는것을 보고 승벽심이 일어나 날이 새도록 집에서 비동기전동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고 한다.

그는 꾸준한 탐구로 《전기기계》, 《전력용변압기》를 비롯한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고 후비양성에도 기여하여 부교수의 학직을 수여받았다.

이들형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말없는 경쟁자들이지만 방조자이기도 하다.

형은 늘 동생의 사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가 하면 그의 연구에 새로운 착상의 실마리를 틔워주고있다. 동생 역시 출장길에서 형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얻게 되면 즉시에 보내주고있다.

이들형제가 모여앉으면 자연히 화제는 연구개발이라는 공통주제로 흐르고있다.

김강섭소장은 《나라에서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며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여 우리 형제에게 살림집을 배정해주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여기에 비추어보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형제는 과학연구에 일생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형 김강섭(앞줄 가운데)

동생 김은섭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려명골프려행사의 활동

사장 장정순

주체106(2017)년 6월 30일에 창립된 려명골프려행사는 아직은 첫걸음이라고도 할수 있는 조국의 골프문화를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인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실천해가고있다.

려행사에서는 평양골프장에서의 골프관광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골프관광은 남포시 강서구역의 풍치수려한 태성호기슭에 자리잡은 평양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태성호에서 낚시질과 그 주변에 위치한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인 강서세무덤과 강서약수공장을 참관하고 이름난 강서약수를 마시며 약수목욕도 할수 있는 1박2일, 2박3일의 체육문화오락관광으로서 국내외 많은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평양골프장은 300여정보의 총부지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18개 홀로 구성되여있다. 골프주로의 총연장길이는 약 7.6㎞이다.

평양골프장은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잔디, 신선한 공기, 무성한 수림, 태성호의 맑은 물, 매혹적인 기복을 이룬 야산들의 풍치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것으로 하여 골프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뿐만아니라 골프경기장으로서 국제경기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설계와 시공을 독특하게 하였다.

평양골프장에는 애호가들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숙소들과 여러 봉사시설들도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려명골프려행사 관광과장 리영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기간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국인민들이 골프관광을 하였다. 그들은 <정말이지 평양골프장에 한번 오면 떠나고싶지 않다.>, <저도 모르게 단골손님이 되였다.>고 하였다.》

려행사에서는 이밖에도 손님들의 기호와 취미

려행사의 봉사수준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협의회

평양골프장

에 맞게 조국의 명산, 명승지, 력사유적들에 대한 관광도 편리하게 일정에 포함시켜주고있다.

지난해 10월 려행사에서는 체육성 골프협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국에서 처음으로 가을철골프애호가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주최하였다. 경기에는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남녀로소 수십명이 참가하였는데 려행사에서 선수들에게 경기복장과 기재, 숙식조건과 훈련조건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중구역 동안1동에 살고있는 허영일로인은《나는 일흔이 거의 되였지만 경기참가를 신청하였다. 려행사에서는 나뿐만아니라 선수들에게 온갖 편의를 다 보장하여주었다. 경기에 참가하고나니 10년은 젊어진것같다. 정말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였다.

선수들과 애호가들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 조국의 골프문화가 더 높은 단계에로 비약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골프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데 맞게 려행사에서는 주체109(2020)년 3월부터 골프직업기술학교를 내오고 해마다 골프기술과 외국어를 소유한 수십명의 봉사원들을 자체로 양성하여 평양골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일반봉사와 함께 골프치기교육과 기술전습을 동시에 줄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올해부터 국내경기들에 출전하여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야심을 안고있다.

지난 기간 려행사에서는 여러 나라와의 대외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골프에 대한 상식을 주는 도서를 발행하고 인터네트대외홈페지도 활발히 운영하여 평양골프장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려명골프려행사 사장 장정순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특색있는 관광상품들을 계속 개발하는것과 함께 골프애호가들의 경기도 보다 다양하고 의의있게 조직하여 관광을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기쁨과 만족, 보다 훌륭한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골프문화를 보급하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다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민족의 향취를 더해주는

설명절풍습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박사 공명성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얼마전 기자 김성경은 조상전래의 민족의 설명절풍습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박사 공명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주체111(2022)년의 설명절을 앞두고 온 나라 인민들이 명절분위기로 흥성이고있습니다. 설명절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년중 가장 성대히 맞는 민속명절들중의 하나입니다.

소장: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음력 1월 1일(올해 양력 2월 1일)을 설명절로 정하고 크게 쇠여왔습니다.

설이라는 말자체가 새해 첫 명절을 가리키는 고유한 조선말입니다.

옛 기록들에 의하면 새해에 들어서면서 첫번째로 맞는 명절을 《세수》, 《년수》라고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흔히 우리 말로 《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설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기부터 전해져오고있습니다.

고구려시기에는 해마다 설명절이면 왕이 참석한 가운데 두편으로 나뉘여 강에서 서로 돌팔매놀이와 물뿌리기와 같은 편싸움놀이를 하군 하였습니다. 이밖에 백제와 신라에서도 설날에 여러가지 의식이 진행되였다는 기록들이 전해지고있습니다.

우의 사실들은 설명절이 우리 나라에서 수천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풍습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기자: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설명절이 오면 설맞이행사와 민속놀이들을 다채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그렇습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섣달그믐날부터 명절맞이준비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녀인들은 식구들의 설빔(설명절옷차림)을 준비하는 한편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었고 세찬(설음식)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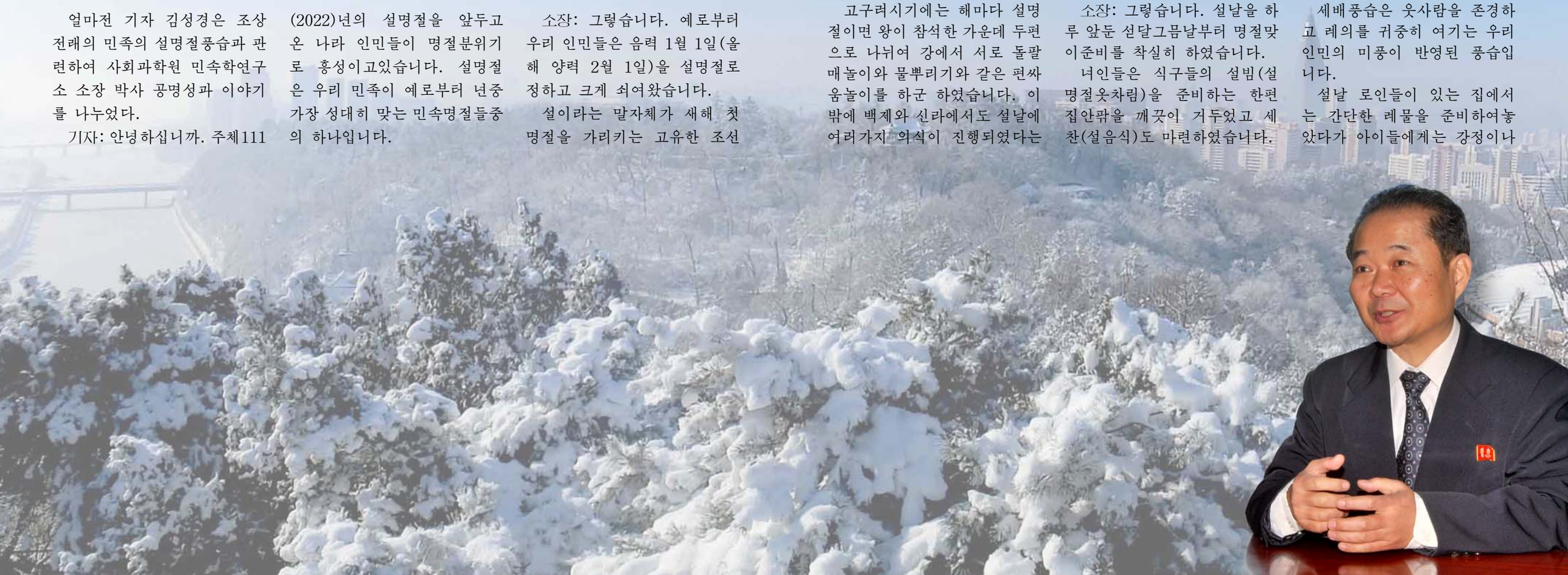
이날에는 밤을 밝혀가며 설음식준비로 흥성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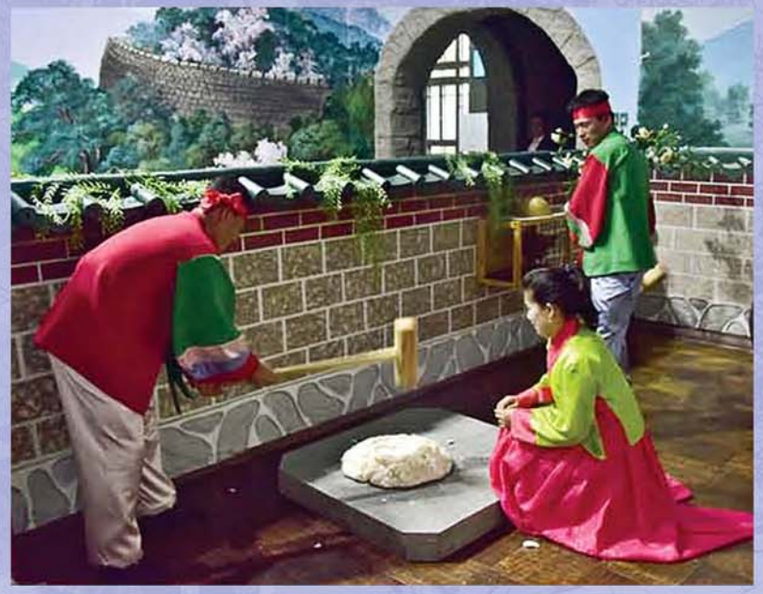
설맞이행사는 정월초하루날 새벽부터 진행되였는데 먼저 설명절옷차림을 하고 돌아간 조상에게 인사를 올리는 차례(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른아침에는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습니다.

세배풍습은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미풍이 반영된 풍습입니다.

설날 로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간단한 례물을 준비하여놓았다가 아이들에게는 강정이나





세배돈을 쥐여주었으며 어른들에게는 간단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친구들사이에는 좋은 의미가 담겨진 말로 서로 축하해주었는데 이것을 덕담이라고 하였습니다.

설명절음식도 특색이 있습니다.

설음식으로는 찰떡, 설기떡, 절편과 같은 여러가지 떡류와 지짐류, 수정과, 식혜, 고기구이, 과일 등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떡국은 설날음식으로서 빠져서는 안되는것으로 되여있었습니다.

설을 쇨 때 반드시 떡국을 먹는것으로 여겼기때문에 예로부터 항간에서는 떡국을 몇그릇 먹었느냐는 물음이 나이를 물어보는 말로 통용되였습니다.

설명절아침에는 찬술을 한잔씩 마시였는데 이것은 과음을 막고 술을 절제있게 마시도록 하기 위한데로부터 나온 관습이였습니다.

기자: 설명절을 특별히 장식하고 즐겁게 하는데서 민속놀이가 이채롭다고 봅니다.

소장: 예. 설날의 놀이로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띄우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녀로소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다 모여놀수 있는 윷놀이가 제일 인기였습니다.

마을녀인들이 모두 모여 즐긴 널뛰기도 설명절의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이어져온 설명절풍습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 아름다운 민족성이 짙게 어려있습니다.

기자: 오늘도 전통적인 설명절풍습은 면면히 계승되여 민족의 향취를 더해주고있지 않습니까.

소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설명절이면 우리 인민은 설과 관련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설빔, 설인사, 설음식, 민속놀이들을 계승하여 즐겁게 쇠고있습니다.

설날아침에는 모든 가정들에서 명절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꽃다발을 드리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어른들을 찾아가 세배를 올리고 새해축하의 인사도 따뜻이 나눕니다.

가정들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설음식들을 마련하여놓고 이웃과 친척들간에 나누어들며 새해에도 건강하여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서로서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설날이 오면 민족의 상을 한 어린이들이 민속놀이로 설명절의 흥취를 더욱 돋구어주군 합니다.

기자: 설명절이야기를 나누고보니 온 나라에 차고넘칠 민족적향취에 금시라도 취하는듯 싶습니다.

소장: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해외동포여러분들도 민속명절인 설명절을 보다 뜻깊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자: 동포들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주체108(2019)년 촬영

고향소식

산간도시 강계

이국땅에서 멀리 고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추억의 갈피를 번져가는 동포들의 애틋한 마음은 누구라없이 같을것이다. 고향을 그리는 동포들의 그 마음을 안고 우리는 얼마전 자강도의 소재지인 강계시를 찾았다.

강계라는 지명은 이 고장을 감돌아흐르는 장자강과 북천, 남천 등 여러 강들의 경계에 자리잡고있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 원래 해방후 평안북도에 속해있던 강계는 주체38(1949)년에 주변의 여러 지역을 합쳐 자강도를 내올 때 시로 승격되고 도소재지로 되였다.

그때부터 강계시는 자강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기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 자강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자강도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일어나 변모의 일로를 개척해나갔으며 조국앞에 닥친 시련을 뚫고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그 과정에 사회주의수호정신인 강계정신이 창조되여 온 나라를 끓게 하였다.

우리가 강계시에 도착하였을 때는 어둠이 깃든 밤이였지만 시내는 대낮처럼 환하였다. 특히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인풍루에서 보는 장자강의 불야경은 볼수록 희한하였다.

조선식합각지붕의 인풍원과 도예술극장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봉사시설들, 다층살림집들의 불장식은 이채로왔다.

시의 일군인 한용송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강계시가 이렇게 몰라보게 변모되였지만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전기사정, 원료사정, 식량사정으로 하여 시민들이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안고 떨쳐일어나 발전소들을 건설하였고 두벌농사와 감자농사, 풀판조성과 잠업 등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숨죽어가던 공장, 기업소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도에서 제일먼저 강계시를 흥하는 고장으로 전변시키였다고 하였다.

없는것,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때에 창조된 강계정신이 장자강발전소와 홍주청년1호, 2호, 3호, 4호발전소들을 일떠세웠고 지금은 5호발전소를 건설하고있는것이다.

5호발전소건설은 종전의 발전소건설에 비해 더 어려운 공사였지만 건설자들은 40여일만에 물길을 돌리였으며 한달이상 걸려야 한다던 가물막이를 열흘동안에 해제끼고 언제공사와 건물건설 등을 끝내가고있다. 건설일군의 말에 의하면 머지않아 5호발전소가 조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자강은 전기강, 보배강으로 더욱 전변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강계시의 망미정(강계일대의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고 하여 부른 지명)지구에 특색있게 건설된 등산길을 돌아본 우리는 공귀동지구의 새 마을에도 들리였다.

마을은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면서도 독특하게 설계된 수십동의 소층살림집과 진료소, 탁아소 등이 시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되여있다.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는 지방도시, 문명한 고장으로 꾸리려는 열의를 안고 이 고장사람들이 방대한 건설공사를 몇달동안에 완공한것이였다.

고향과 자기들의 생활을 문명하고 윤택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은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은 강계시세멘트공장, 강계시어린이식료공장, 강계시고려약공장 등에서도 볼수 있다.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개건된 공장에서 종업원들은 생산공정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갱신하고 원료와 자재를 자기 고장의것으로 전환시켜가고있다. 그 어디에 가보아도 이 고장사람들이 지닌 향토애, 공장애가 안겨왔다.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은 지방산업공장들

자강도예술단에서

그런 남다른 정신력을 지닌 사람들이기에 지난날 화전농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산골이 오늘은 전력, 기계, 방직 및 경공업을 가진 공업도시로 전변되였으며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 장자산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학생소년들의 과외교양기지들과 교육, 보건, 문화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서 청춘도시로 면모가 일신되였다.

우리는 지난날 고향을 떠났던 많은 동포들이 번모의 일로를 걷는 강계시를 그려보리라는 생각을 하며 이 고장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환 생 한 삶

인간의 삶은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그자체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데 참된 의미가 있다.

한생을 통일위업에 바친 렬사들속에는 40여년을 줄곧 반공의 탁류속에서 살아오다가 늦게나마 진정한 애국의 길을 찾고 생의 말년을 빛나게 산 최덕신도 있다.

최덕신은 주체3(1914)년 9월 17일 평안북도 피현군에서 태여났다.

화성의숙(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해외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세운 군사정치학교) 숙장으로 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찌기 반일감정을 가지게 된 그는 주체25(1936)년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중국국민당군에서 일제의 대륙침략을 반대하여 싸웠다.

국민당군에서 복무하면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공존할수 없다는 사상적견해에 물젖어있었던 그는 해방후 반공의 회오리속에 자신을 내맡기였다.

주체35(1946)년 5월 귀국한 그는 오랜 기간 남조선군부와 《정계》의 요직에서 복무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조선군부의 사단장, 군단장으로서 동족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국군대표》로 정전담판에도 참가하였다.

전후에는 외무부장관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열변을 토하기도 했으며 그후 반공련맹 리사장, 국토통일원 고문으로 있으면서 반공의 일선에 서있었다.

그러나 그후 더욱더 격렬해지는 정치적동란을 체험하면서 그는 지나온 자기의 행적을 돌이켜보았으며 이 과정에 남조선에서는 민족을 위한 참된 길을 더는 찾을수 없다는 결론을 찾게 되였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지나온 과거와 단연코 결별을 선언하게 하였다.

주체66(1977)년 1월 그는 해외에로의 망명의 길에 올랐다.

인생말년에 이르러 또다시 겪게 되는 망명생활.

한발을 헛디디여 당하게 된 운명의 희롱앞에서 그는 너무도 야속하여 허탈감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그럴수록 그는 자기의 나약한 심기를 꾸짖으며 늦게나마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성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결연히 분투해나섰다. 그는 미국에서 여러 해외민주운동단체들을 조직하고 고문과 회장 등을 력임하면서 해외교포들속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였으며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많이도 모대기였다.

그는 해외에서 급변하는 남조선정세를 관망하면서 자기의 정치적견해를 하나하나 재정립해나갔다.

이 나날 그는 민족의 재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통일이라면 그것은 싫든좋든간에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으며 점차 공화국에 동경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상극이라고 믿고있는 그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고 두려운 세계였다.

바로 이러한 때 그는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당시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로부터 오래동안 생사여부를 모르고있던 선친이 공화국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였으며 사후에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아래 애국지사라는 높은 호칭까지 지니고 안장되여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그는 자식된 도리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선친의 묘소를 찾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더우기 갈라진 민족의 운명을 놓고 모대기던 그에게 있어 공화국방문은 민족을 위해 이바지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공화국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기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인사들과 해외인사들에게 서로 만나 대화할것을 제의한 내용의 서한을 받아안게 되였다.

오욕스러운 과거를 안고있는 자신이 공화국의 초청장까지 받고보니 그는 참으로 감개하였다.

그러나 마음속 한모퉁이에 뿌리깊이 잠재해있는 공화국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그의 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날의 욕된 행적에 발뒤꿈치를 잡히고싶지 않았다.

그는 저서 《민족과 나》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본인은 이남에서 쫓겨난것도 아니며 무엇을 배반하고 변절한것도 아니다. 나는 결코 민족을 떠난것도 아니며 조국을 저버린것도 아니다.

나는 민족을 욕되게 하는 일을 더는 지속할수 없어 스스로 뛰쳐나온것이고 뒤늦게나마 나라와 민족앞에 속죄할수 있는 길을 찾고있는것이다. 누가 무엇이라 하든 나는 민족을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내가 가보려고 하는 이북땅 거기에도 내 겨레가 살고있는 조국땅이 아닌가.》

주체67(1978)년 11월 최덕신은 마침내 공화국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올랐다.

조국에서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선친의 성묘부터 먼저 하도록 방문일정을 잡아주었다.

최홍희의 말그대로 부친의 묘는 평양시교외의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었다. 봉분과 함께 《애국지사 최동오선생의 묘》라고 쓴 묘비를 보았을 때 최덕신은 격정이 북받쳐 오열을 터뜨리였다.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주의주장, 정견을 가리지 않고 다같이 한품에 안아주는것, 이것은 흔히 말하는 《관용》과는 근원이 다른 혈연에 기초한 의리이고 사랑임을 최덕신은 절감하였다.

얼마후 최덕신을 몸소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죄의식으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는 그에게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이고 지금 나라가 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기로에 선 이때에 우리와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하여 한몫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면서 그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선생을 보니 최동오선생이 생각난다고 하시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회고해주시였고 그의 가정에 대해서도 따뜻이 물어주시였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최덕신은 한때의 잘못을 너그러이 백지화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넓은 도량과 사랑에 매혹되였으며 그이의 사상을 받들어 조국통일사업에 몸바쳐 헌신할 결의를 굳게 다짐하였다.

체류기간 그는 50년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였다.

사실 최덕신은 고향방문을 계획하지도 않았었다.

그것은 그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거나 찾아보고싶은 일가친척이 없어서가 아니였다.

지난날 공화국과 적대되는 길을 걸어온 그는 고향의 친척들이 자기때문에 화를 입을것으로 짐작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부터 그는 고향마을을 찾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고향방문은 그의 일정에 새롭게 오르게 되였다.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며 울고웃으며 포옹해주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는 변함이 없는 혈육의 정, 동포의 정을 뜨겁게 느끼였다.

그의 공화국방문은 반공으로 얼룩져있던 운명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재생의 빛을 가져다주었다.

그후 최덕신은 고령의 몸이지만 왕성한 정력으로 해외에서 애국활동을 더 힘있게 벌려나갔다.

늦게나마 련공합작의 길에 나선 최덕신의 애국애족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그와 가정을 따뜻이 돌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덕신이 부인과 함께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전문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부인에게 고치지 못한 중한 병이 있다는것을 아시고서는 유능한 의료진을 붙여 수술을 하게 해주시였으며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 그에게 친히 생일상까지 차려주시였다.

조국에서 가슴뜨거운 동포애를 체험한 최덕신은 마침내 주체75(1986)년 8월 사회주의조국에 영주할것을 결심하였다.

그의 공화국영주는 삶의 항로를 매국에서 애국에로, 불의에서 정의에로 대담하게 바꾸어 《신인간》으로 다시 태여나게 한 환생의 계기였다.

영주를 선언한 그는 조국에서 다년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신보사 명예사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였으며 **김일성**훈장과 조국통일상도 수여받았다.

최덕신은 생의 마지막까지 조국통일성업을 위해 자기의 심신을 다 바침으로써 사후 선친과 나란히 애국지사로 생을 빛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80(1991)년 8월 1일 최덕신의 곡절많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최덕신선생은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생의 말년에 조국통일운동대오에 서서 겨레와 함께 나아감으로써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애국렬사로서 영생할수 있게 되였으며 내외동포들에게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의 참뜻을 깨우쳐주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조국에 영주한 때로부터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것을 집필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 《민족과 나》, 《남한땅에 30년》, 《민족의 살길을 찾자》 등이 있다.

본사기자 김성경

상 식

심 장 관 리 를 잘 하 자 면

먼저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

스트레스는 심장에 위험한 무시할수 없는 인자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등 심장 및 순환기계통에서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몸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부터 오는것이다.

사업과정에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심장위험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40%나 높다고 한다. 여기에 담배까지 피우면 수명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는 건강체조 등을 통하여 부단히 풀어야 한다.

다음으로 혈압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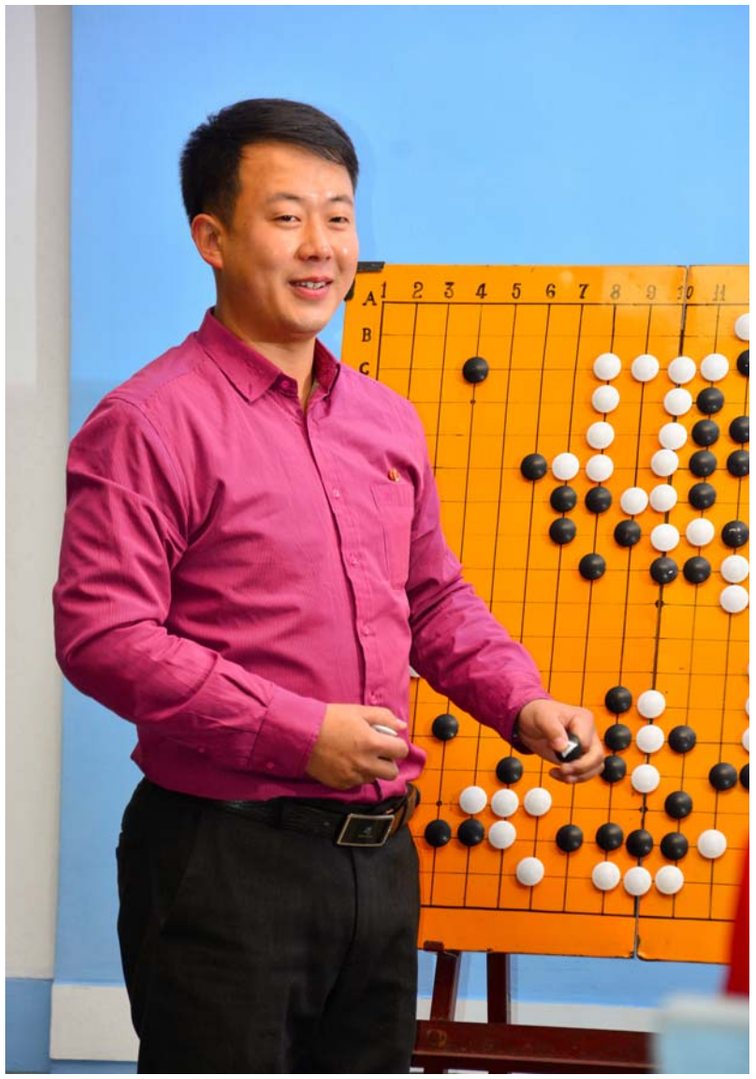
고혈압은 모든 심장질병의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혈압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는것은 심장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끝으로 주위사람들과의 화목을 도모해야 한다.

안정되고 조화로운 환경은 심장관리에 좋은 영향을 준다.

* * *

금메달을 쟁취하기까지



주체94(2005)년 제26차 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대회 2등
주체95(2006)년 《상업컵》항주국제바둑초청경기대회 3등
주체95(2006)년 제27차 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대회 3등
주체97(2008)년 제1차 세계지능경기대회 바둑공개개인경기 1등

지난해 7월 한때 세계아마츄어바둑계에서 각광을 모았던 인민체육인 조대원은 33살 젊은 나이에 조선바둑협회 부서기장이 되였다.

성공한 인재들의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스승이 있기마련이다.

《나를 성공에로 이끈 첫 스승은 아버지이다.》

그는 자주 바둑의 첫걸음을 떼여준 아버지를 감회깊이 추억하군 한다.

일본 오사까에서 태여난 조대원의 아버지 조상철은 주체53(1964)년에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당시 함흥시의 설계사업소 설계원으로 일하던 조상철은 아들이 태여나자 《으뜸이 되라.》는 뜻에서 대원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남달리 영민한 대원은 2살때부터 우리 말과 셈세기를 곧잘 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자에 특별히 밝다는것을 알고 일터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속셈공부를 꾸준히 시키였다.

아들이 4살 나던 해 조상철은 바둑이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좋다는 자료를 보게 되였다. 그는 바둑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했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민족체육이라는데 대해서는 잘 알고있었다.

그때부터 어린 대원은 바둑과 인연을 맺었다. 대원은 수가 깊고 다양하며 복잡하면서도 흥미있는 바둑놀이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제일 좋아하던 놀이감권총도 밀어놓고 늘 바둑알을 쥐고 바둑판에서 일어날줄 모르는 어린 아들을 위해 아버지도 바둑공부를 직심스레 하였다. 어떤 때에는 바둑과 관련된 책을 얻기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어떤 날에는 밤잠을 잊고 많은 바둑수풀이를 그리기도 했다.

아들의 바둑수가 날이 감에 따라 높아가자 자기가 가르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된 아버지는 대원이의 손을 잡고 당시의 함흥시청소년체육학교 바둑지도교원이였던 김화봉을 찾아갔다. 그때부터 대원은 김화봉의 제자가 되여 바둑의 전문교육을 차곡차곡 받게 되였다. 그는 6살에 전국적인 청소년들의 바둑경기에서 우승하고 단번에 5단자격을 받았으며 몇해후에는 당당한 7단소유자로까지 되였다.

기발하고 독특한 바둑수법으로 그는 여러 국내경기들과 제1차 국제무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가 주체94(2005)년 5월에 진행된 제26차 세계아마츄어바

바둑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있는 조대원

가정에서

둑선수권대회에서 2등을 하고 조국에 돌아왔을 때였다.

함흥에서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의 긍지속에 나와 너의 긍지도 있다. 나의 소원은 네가 세계무대에서 1위를 하여 민족의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는 것이다. 네가 받아올 조국의 금메달을 보고싶다.》

대원은 자신에게 더 높은 훈련목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우승에로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06년 《상업컵》항주국제바둑초청경기대회와 제27차 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두 차례의 경기들에서는 순위권에 입선하지 못하였다.

뼈아픈 실패속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고 분발하였다. 그는 자기의 기술수법들을 더욱 세련시켜 주체97(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있은 제1차 세계지능경기대회 바둑공개개인경기에 출전하였다. 이 대회는 지력과 정신력을 겨루는 큰 규모의 대회로서 바둑공개개인경기에만도 100여명의 우수한 아마츄어바둑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조별경기에서 일본, 중국대북선수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진출한 조대원은 상대선수를 이기고 끝끝내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오른 그날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뜻깊은 날이였다.

대원의 눈앞에는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온 나날들이 어제런듯 떠올랐고 기뻐서 어쩔줄 모를 아버지의 모습도 안겨왔다.

허나 조국에 돌아온 대원은 비통한 소식에 접하였다.

몇달전 대원의 아버지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하는 자기 아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아들이 꼭 금메달을 쟁취하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던것이였다.

그는 아버지의 령전에 자기의 금메달을 정히 놓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고바라던 아들의 금메달, 그것은 민족체육의 하나인 바둑을 온 세상에 높이 들어올린 금메달이였다.

그후 조대원은 선수생활을 마치고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졸업후 바둑연구사를 거쳐 오늘은 조선바둑협회 부서기장으로 성장하였다.

조대원은 《나를 배워준 첫 스승인 아버지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아마 자식을 훌륭히 키울수 없었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 식

개성지방의 돌칸한증

개성지방에는 그 어느 지방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이한 한증풍습이 있다. 즉 나무나 벽돌이 아니라 돌로 궁륭식도가니를 쌓고 그것을 가열한 다음 그안에 들어가 한증하는것이다.

이러한 한증을 일명 돌칸한증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개성지방사람들은 돌칸한증이 아닌 다른 한증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데로부터 개성지방에서는 돌칸한증이 널리 장려되였으며 그러한 풍습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돌칸한증은 반드시 소나무장작을 때서 도가니를 덥히고 다 덥혀진 도가니에 청솔가지들을 넣어두는것으로 되여있다고 한다. 그래야 송진의 좋은 성분이 사람의 몸에 푹 배여 건강에 리롭다는것이다. 또한 한증후에는 음료를 마셔야 하는것으로 여기였는데 개성지방에는 예로부터 한증칸밖에 설렁탕집이 꼭 잇달려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증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한여름에도 뜨끈한 설렁탕을 막걸리에 곁들여 먹었다고 한다.

돌칸한증은 오늘도 개성지방 사람들속에서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 * *

력사인물

서예의 대가 김정희

김정희(1786년-1856년)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실학자이며 서예가이다.

그는 7살에 벌써 붓글씨에 뛰여나 뭇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15살에 실학자 박제가의 제자가 되여 고증학과 시와 글씨를 배웠다. 1809년에 과거에 급제한 그는 여러 벼슬을 거쳐 병조참판을 하였다.

김정희는 조선서예력사상 재능있는 대가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였다.

그는 력대 명필들의 장점을 따라배우고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켜 조선서예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 박력과 자유분방한 필치, 기발한 구성으로 예술적풍격을 자랑하는 그의 독특한 필체는 《추사체》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는 이 추사체를 창조하는 과정에 10개의 벼루를 먹을 갈아 뚫었고 1 000자루의 붓촉을 닳아 없앴다고 한다.

그는 《자기의 정신상태가 바로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좋은 글씨를 쓸수 없다.》고 하면서 글씨는 글씨를 위한 글씨가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지식과 옳바른 정신으로 뜻있는 내용을 써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여있는 《초가삼간도 비바람을 피할수 있다》, 《자손을 가르치려면 마땅히 뉘우침 없는 떳떳한 도리로 가르치라》를 비롯하여 그의 많은 서예작품은 국내외의 여러 박물관에서 전해지고있다.

그는 서예뿐 아니라 한시도 잘 썼으며 묵화화가로서의 이름도 날리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시서화3절》이라고 일렀다.

그는 풍경화와 사군자를 잘 그리였다. 그의 그림작품들인 《돌과 란》, 《풍경》, 《호수가의 정자》 등이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여있다.

이밖에도 김정희는 고고학과 금석학연구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는 북한산비와 평양고구려성벽의 석각을 발굴고증하였으며 전국에 널려있는 금석문자료들을 조사연구하여 《해동금석목록》을 편찬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의미에서의 최초의 금석학학자, 고고학학자로 되였다.

* * *

자강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인 풍 루

인풍루는 자강도 강계시 충성동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루정이다.

강계시의 서북쪽을 감돌아흐르는 장자강반의 벼랑우에 서있는 루정은 당시 강계읍성의 서북쪽 장대로서 군사들의 교련과 사열에 많이 리용되였다.

진달래가 만발한 봄날의 인풍루와 장자강 달빛을 굽어보는 달밤의 인풍루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다.

루정의 아래로는 장자강의 맑은 물이 흐르고 맞은편으로는 소나무, 잣나무가 우거진 랑림산줄기를 볼수 있어 산수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

인풍루는 원래 강계읍성부속 루정으로서 1472년에 처음 세워지고 1680년에 불에 탄것을 그해에 다시 지었다.

인풍루는 강계성과 함께 북방방위를 위한 중요한 요새로서 전시에는 군사지휘처로, 그 앞의 넓은 마당은 군사들이 무술을 련마하는 훈련장으로 리용되였다. 여기에서 훈련된 군사들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나라의 귀중한 력사유적인 인풍루는 잘 보존관리되고있으며 주변에 꾸려진 강계공원과 함께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　　*　　*

리명수폭포의 설경

리명수폭포는 량강도 삼지연시에 있다.

폭포의 기본물줄기는 9개이며 물줄기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이 있다.

여러가지 모양의 폭포들을 축소하여 한곳에 모아놓은듯한 리명수폭포는 물줄기들사이에 드러난 검은 바위, 폭포아래의 수정같이 맑은 호수, 주변의 나무숲들이 서로 잘 어울려 특이한 경치를 이루고있으며 철따라 색다른 경치를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백두의 강추위속에서도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리는 리명수폭포의 설경은 볼수록 장관이다. 특히 땅속에서 흘러나온 물이 찬 대기와 접촉하여 생긴 안개가 주변나무들에 서리꽃을 피워 이 일대를 서리꽃숲으로 변하게 하는데 그 모습은 볼수록 매혹적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춤추는 선녀의 날개옷같고 가까이에서 보면 해빛을 받아 눈부신 리명수폭포의 설경은 참으로 이채롭다. 뿐만아니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이 절벽에 만들어놓는 얼음기둥도 시간이 감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하여 마치 금강산의 만물상을 옮겨놓은것같다.

보기 드문 신기한 지하수폭포인 리명수폭포는 풍치상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